



KIA 타이거즈의 합동훈련이 시작된 10일 선수단이 무등경기장 내 실내연습장에서 몸을 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KIA 'V11' 도전 시작됐다

'V11'을 향한 호랑이 군단의 진군이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가 10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투·야수조 합동훈련을 갖고 2011년 공식 훈련 일정에 돌입했다. 조범현 감독과의 전체미팅을 갖은 선수단은 실내 연습장을 달리며 2011년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선수단은 오전 체력훈련에 이어 오후

배팅 훈련과 톱토스 등을 하며 스프링캠프에 대비했다. 이날 스프링캠프 참가자 명단을 발표했다. 조범현 감독을 필두로 한 코칭스태프에는 타격, 수비 코치로 새로 영입된 히라노 켄(56)과 다카하시 마사히로(47) 코치 등이 참여한다. '투키' 홍건희·박기철·윤정우도 명단에 포함됐다. 투수조는 오는 14일 1차 캠프자인 팜으로 출

국해 스프링캠프 일정을 시작하고, 야수조는 16일 일본 미야자키로 건너가 캠프를 차린다. 캠프에서 훈련중인 김희걸·한기주·안치홍·신종길·박기남·차일목 등 재할조는 오는 28일 투수조와 함께 스프링캠프 본진인 미야자키에 합류할 예정이다. <2011 스프링캠프 참가자 명단> <코칭스태프>=조범현 황병원 이강철 조규제

투·야수조 등 공식훈련 스타트 팜서 미야자키서 스프링 캠프

이건열 백인호 최태원 김태용 히라노 다카하시 ▲투수=이대진 서재용 안영명 윤석민 광정철 박성호 조태수 이상화 김진우 홍건희 박기철 유동훈 손영민 신용운 차정민 양현종 심동섭 임기준 로페즈 ▲야수=김상훈 이상우 김태훈 최희섭 이현근 김상현 김선민 김주형 이영수 홍재호 이종범 김원섭 나지완 이용규 김다현 최훈라 윤정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버드, 연장전의 사나이

지난해 '저스틴 오픈' 이어
PGA 개막전도 연장 우승
앤서니 김은 공동 19위



조너선 버드(미국)가 2011년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개막전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버드는 10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 카팔루아 골프장 플랜테이션코스(파73·7411야드)에서 열린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4라운드에서 전날 공동선두였던 로버트 게이거스(미국)와 나란히 6언더파 67타를 쳤다. 24언더파 268타를 써낸 돌은 연장에 들어갔고, 연장 첫 번째 경기에서 진행된 18번 홀(파5)에서는 나란히 파를 세이브했다. 그러나 1번 홀(파4)로 옮겨 진행된 두 번째 연장전에서 게이거스의 90cm 짜리 파 퍼트가 홀을 틀어 나간 반면, 버드는 침착하게 파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버드는 지난해 10월 저스틴 팀버레이크-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에서

네 번째 연장전까지 가는 팽팽한 승부 끝에 짜릿한 홀인원으로 정상에 올라 이번 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고, 올해 첫 대회에서 다시 기분 좋은 연장전 승리를 따냈다. 그레임 맥도웰(북아일랜드)이 4라운드에서만 11타를 줄이는 불꽃타를 휘두르며 23언더파 269타를 써내 3위에 올랐고, 카를 페테르손(스웨덴)과 스티브 스트리커(미국)가 나란히 세 타차로 뒤를 이었다. 한편 재미교포 앤서니 김(26·나이키골프)은 마지막 날 버드(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타를 줄이며 최종 합계 10언더파 282타를 적어내 공동 19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아시아시리즈 연다

한·일·대만·중 4개국 대만서 개최 합의

한국, 일본, 대만 프로야구가 자국리그 챔피언끼리 겨룰하는 아시아시리즈를 대만에서 부활하는 방안이 뜻을 모았다. 이상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과 시모다 구니오 일본 야구기구(NPB) 사무국장, 웨인 리 대만프로야구리그(CPBL) 사무총장은 10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아시아 3개국 리그 사무총장 회의를 열고 올해 아시아시리즈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리 CPBL 사무총장은 중국까지 합쳐 4개국 챔피언이 겨룰하는 아시아시리즈를 대만에서 열 것을 제의했다. 3개국 실무 책임자가 아시아시리즈 부활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올해 아시아시리즈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3월 중 열릴 아시아 4개국 커미셔너 회의에서 확정된다. 일본 게이화사 코나미사가 후원해 2005년 출범한 아시아시리즈는 2008년까지 일본 도쿄돔에서 열렸다. 그러나 코나미사가 후원을 접고 흥행과 팬들의 관심이 떨어진다면서 2009년과 2010년에는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대신 KBO와 NPB는 한국시리즈와 일본시리즈 우승팀끼리 겨룰하는 한·일클럽 챔피언십을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치렀고 KBO와 CPBL은 지난해 한국·대만 클럽 챔피언십을 벌였다. /연합뉴스

“올 시즌 경쟁력은 마운드의 힘!”

조범현 감독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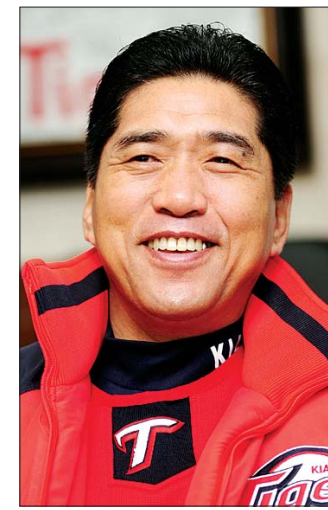
“더 이상의 잔인한 4월은 없다.” 10일 새해 첫 합동 훈련을 지휘한 KIA 타이거즈의 조범현 감독이 2011년의 구상을 밝혔다. 이례적으로 12월 마무리훈련을 진행했던 조 감독은 스프링캠프에서는 어느해보다 일찍 연습경기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의 극심한 부진이 시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따라 전력을 일찍 끌어올려 초반부터 순위 싸움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조 감독은 “내달 4일부터 연습경기 스케줄을 소화할 예정이다. 예년 스프링캠프에 비하면 빠

신용운·김진우 부활 예고

초반부터 순위싸움 속도
우승 기대해도 좋다

른 일정이지만 마무리캠프에서부터 투수들이 준비를 잘해왔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이다. 젊은 선수들이 많은 만큼 경기를 통해서 스스로 플레이 하고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운드의 힘”이 2011년에도 KIA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밝힌 조 감독은 치열한 마운드 싸

움을 예고했다. 조 감독은 “마무리캠프에서 광정철과 손영민이 자신의 불을 찾았다. 박성호도 성실한 자세로 마무리훈련을 소화하며 좋은 점수를 받았고, 신인 홍건희도 큰 투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여기에 신용운과 김진우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만큼 올 시즌 투수들 엔트리 진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 감독의 고민은 야수진이다. 조 감독은 “김주형이 기술적으로 좋아졌고, 마무리 훈련도 잘 치러냈다. KIA 공격력 강화를 위해 김주형의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안치홍의 복귀 시점이 확실치 않고 박기남도 재할조이라 수비 포지션을 놓고 다양한 계산을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서울로 Go Go~
KTX타고가는 신나는 겨울여행

www.4100tour.com

서울로 명소탐방 시티투어 기차여행(1박 2일)

교통	시간	일정	비고
KTX402	06:00	목포역 출발-광주 승정(06:37)-정읍(07:07)-익산(07:33)-용산역(09:33)	미팅및 차량 탑승
KTX504	07:30	광주역 출발-정읍(08:10)-익산(08:33)-용산역(10:18)	
1 일차	연계차량	11:20	남산 케이볼카 탐승(편도 10분소요)-남산N타워 전망대 및 서울성곽, 봉수대 등 관람(남산N타워 전망대 요금별도 8,000원)
		11:50	청계천 산책(청계광장-모교동-광릉교-광교교간 / 약 20분)
		12:30	무교동 낙지골목에서 자유식
		13:50	경복궁으로 이동(광화문광장 / 청와대 뒷길 경유)
		14:00	경복궁 관람(근정전-사정전-경회루-강명전-교대전 / 공해설 포함) 화요일은 덕수궁 관람으로 대체합니다.
		15:30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 관람 월요일은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으로 대체합니다.
		16:40	한강 유람선 탑승(상류-동작대교-하류-당신철교 / 1시간소요)
		20:00	숙소 체크인 및 자유시간
		07:30	기상 및 조식 후 용산으로 이동, 전쟁기념관 관람
		10:00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 및 국립중앙박물관 이동
2 일차	연계차량	12:00	인사동 맛집에서 자유식
		13:00	동대문시장 둘러보기
		14:30	남산 한옥마을로 이동 및 관람
KTX417	20:10	용산역 출발-익산(22:02)-정읍(22:24)-광주 승정(22:51)-목포(23:24)	
KTX515	19:20	용산역 출발-정읍(21:37)-광주(22:19)	

요금안내(1박 2일)

요일구분	광주 - 용산 요금안내	목포 - 용산 요금안내			
탑승지	대인	소인	탑승지	대인	소인
월~목	136,000	129,000	월~목	140,000	133,000
금/토/일/공휴일	153,000	146,000	목포	157,000	150,000
월~목	131,000	125,000	월~목	135,000	128,000
금/토/일/공휴일	148,000	142,000	금/토/일/공휴일	152,000	145,000
월~목	128,000	121,000	월~목	131,000	125,000
금/토/일/공휴일	145,000	138,000	금/토/일/공휴일	148,000	142,000
월~목			월~목	128,000	121,000
금/토/일/공휴일			금/토/일/공휴일	145,000	138,000

*포함내역: KTX왕복열차비, 시티투어차량, 숙박비(일반호텔 또는 모텔), 경복궁입장료, 남산케이볼카비(편도), 한강유람선승선료, 가이드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213-359177 / 농협 352-0115-4438-33 예금주 이정우

서울로 시티투어 기차여행(당일)

교통	시간	일정	비고
KTX402	06:00	목포역 출발-광주 승정(06:37)-정읍(07:07)-익산(07:33)-용산역(09:33)	미팅및 차량 탑승
KTX504	07:30	광주역 출발-정읍(08:10)-익산(08:33)-용산역(10:18)	
1 일차	연계차량	11:20	남산 케이볼카 탐승(편도 10분소요)
		11:50	청계천 산책(청계광장-모교동-광릉교-광교교간 / 약 20분)
		12:30	무교동 낙지골목에서 자유식
		13:50	경복궁으로 이동(광화문광장 / 청와대 뒷길 경유)
		14:00	경복궁 관람(근정전-사정전-경회루-강명전-교대전 / 공해설 포함) 화요일은 덕수궁 관람으로 대체합니다.
		15:30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 관람
		14:00	여의도 한강공원 둘러보기 & 한강 유람선 승선 (상류-동작대교-하류-당신철교 / 1시간소요)
KTX417	20:10	용산역 출발-익산(22:02)-정읍(22:24)-광주 승정(22:51)-목포(23:24)	
KTX515	19:20	용산역 출발-정읍(21:37)-광주(22:19)	

요금안내(당일)

요일구분	광주 - 용산 요금안내	목포 - 용산 요금안내			
탑승지	대인	소인	탑승지	대인	소인
월~목	86,000	79,000	월~목	89,000	82,000
금/토/일/공휴일	88,000	81,000	목포	91,000	84,000
월~목	81,000	75,000	월~목	85,000	78,000
금/토/일/공휴일	83,000	77,000	금/토/일/공휴일	87,000	80,000
월~목	78,000	71,000	월~목	81,000	74,000
금/토/일/공휴일	80,000	73,000	금/토/일/공휴일	83,000	76,000
월~목			월~목	78,000	71,000
금/토/일/공휴일			금/토/일/공휴일	80,000	73,000

*포함내역: KTX왕복열차비, 시티투어차량, 경복궁입장료, 남산케이볼카비(편도), 한강유람선승선료, 가이드

태백 눈꽃축제 (1월 22일~23일 무박 2일)

날자	교통	시간	일정
1월 22일	무궁화호	22:00~06:00	목포역출발-임성리역-일로역-동탄역-무안역-함평역-나주역-광주승정역-태백역도착
		06:00~06:30	(등반팀) 태백역-유일사일주도착-자유조식-태백산 산행(유일사-담골코스)-천제명산 태백산 눈꽃산행 -현재단체에서 바라보는 등해 (편광팀) 태백역-용연동굴이동 용연동굴관람-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지대 동굴-중유동 등 신비한 동굴세계 용연동굴출발-담골관장도착-자유조식
1월 23일	무궁화호	14:00	선탄박물관, 단강성진, 눈꽃 축제장-눈썰매장(개인지출)등 자유시간
		22:00	담골관장 2주차장 출발-태백역이동 태백역 출발(열차내 석식 도시락 제공) 광주승정역-나주역-함평역-무안역-동탄역-일로역-임성리-목포역도착

유뉴남해여행사
문의전화 061-287-4100-4200 / 284-1135 / 011-632-1133